

# 줄부상 'DB 산성' 버티느냐 무너지느냐

### 우승 후보 DB, 윤호영 전열 이탈 속 시즌 첫 3연패 이번 주 상위권 KCC·인삼공사·SK와 3연전... 비상

'김종규 효과'를 특별히 누리며 기세를 올린 프로농구 원주 DB가 위기를 맞았다.

DB는 2일 서울 삼성과 원정경기를 시작으로 9일 고양 오리온, 10일 현대모비스와 대결에서 연거푸 무릎을 꿇었다. 올 시즌 연패도 없던 팀이 최근 3연패에 빠졌다.

우승 후보로도 꼽히는 DB는 개막 이후 5연승을 질주하며 독주 체비에 나서는 듯했다. KBL 역대 최고 대우인 보수 총액 12억7900만원에 영입한 센터 김종규가 빠르게 팀에 녹아들며 DB는 거칠 것이 없어 보였다.

하지만 현재 DB는 7승 5패로 4위로 내려앉았다. 선두 서울 SK(10승 3패)와는 2.5 경기 차다.

부상이 DB의 발목을 잡고 있다. 선수층이 두껍지 않은 DB에 부상은 치명적이다.

DB는 시즌 두 번째 경기였던 지난달 9일 안양 KGC인삼공사전에서 허용이 발목을 다친 이후 김현호도 발목 부상으로 전열에서 이탈하면서 가드 라인에 비상이 걸렸다. 허용과 김현호가 없는 동안에는 김태술, 김민구, 원종훈 등에게 자리를 맡겼다.

하지만 2일 삼성과 경기에서 포워드 윤호영마저 발목을 다치면서 DB의 시름은 깊어졌다. 윤호영은 오른 발등 미세 골절 진단을 받아 복귀까지 4주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김종규, 차나누 오뉴아쿠와 함께 'DB 산성'을 구축하며 올 시즌 10경기에 출전해 평균 7.1점에 6리바운드, 3어시스트를 기록한 윤호영까지 빠지면서 DB의 위기감은 더 커졌다.

가진 공백으로 인한 전력 누수는 김태술, 김민구 등의 체력부담을 떠안고서라도 어떻게든 막아봤다. 하



원주 DB 포워드 윤호영(왼쪽)과 센터 김종규.

지만 윤호영의 빈 자리는 어떻게 메울지는 뻔찮은 수가 없다는 것이 DB로서는 고민이다.

DB의 올 시즌 경기장 특점은 80.0점으로 리그 10개 팀 중 5위다. 하지만 윤호영 없이 치른 최근 두 경기에서는 평균 64.0득점에 그쳤다.

이번 주 일정도 DB를 도와주지 않는다. DB는 12일에 3위 전주 KCC와 원정 경기를 치른 뒤 15일 5위 KGC인삼공사, 17일 선두 SK와 차례로 홈 경기를 가진다. 모두 상위권에 올라 있는 벼간 상대들이다.

연합뉴스



제43회 제주특별자치도사격연맹회장기 종합사격선수권대회 입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사격연맹 제공

## 표선중 오예진, 대회 신기록을 쓰다

### 여중부 공기권총 553점 우승

오예진(표선중학교 2)이 '제43회 제주특별자치도사격연맹회장기 종합사격선수권대회'에서 대회 신기록을 썼다.

오예진은 지난 9일 제주고등학교 사격장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여중부 공기권총에 출전해 553점을 기록하며 우승을 차지했다. 이로써 같은 대회 이전 최고기록(529점)을 갈아치우며 최우수선수상을 수상하는 기쁨도 안았다.

남고부 공기권총 단체전에서 현혁준, 최우진, 윤예찬, 윤해준이 호흡을 맞춘 제주고등학교가 1632점으로 1위에 올랐다. 여고부 단체전에선 제

### 주여상(오수민, 정은주, 김나현, 김기빈)이 1641점으로, 여중부에선 제주 동여중(정우진, 조소희, 김유현, 강지예)이 1520점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개인전에선 남고부 공기소총에 출전한 황경모(제주고 3)가 609.2점을 기록하며 1위에 올랐다. 남고부 공기권총에선 제주도 2학년 현혁준(561점), 여고부 같은 종목에선 제주 이상 3학년 오수민(553점)이 정상에 올랐다. 현혁준은 이번 대회 남자부 최우수선수상을 거머쥐기도 했다.

남중부 공기권총에선 고석한(제주 중앙중)과 오승현(표선중)이, 남초부 같은 종목에선 김재현(광명초)이 1위를 차지했다.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 한국 축구, U-17 월드컵 4강 진출 좌절

### 8강 멕시코전 0-1로 패 골대 불운·부상 아쉬움

국제축구연맹(FIFA) 17세 이하(U-17) 월드컵 우승을 꿈꾸던 '리틀 태극전사'들의 위대한 도전이 8강에서 멈춰 섰다.

김정수 감독이 이끄는 한국 U-17 축구대표팀은 11일(한국시간) 브라질 비토리아의 클레베르 안드라지 경기장에서 열린 멕시코와 2019 FIFA U-17 월드컵 8강전에서 0-1로 무릎을 꿇었다.

한국은 10년 만에 역대 최고 성적인 8강(1987년·2009년·2019년)과 어깨를 나란히 했지만 4강 문턱에서 멕시코에 털미를 잡혔다.

한국을 꺾은 멕시코는 8강전에서 파라과이를 4-1로 격파한 네덜란드와 결승 진출을 놓고 다투게 됐다.

안타까운 패배였다. 한국은 전반 14분 페널티지역 정면 부근에서 최민서(포항제철)가 시도한 강력한 원발 중거리포가 크로스바를 때리고 나오는 '골대 불운'을 겪었다.



10일 오후(현지시간) 브라질에서 열린 'FIFA U-17 월드컵' 대한민국 대 멕시코 8강 경기. 0-1로 패한 뒤 흥성욱이 눈을 흘리는 골키퍼 신승훈을 안아주고 있다. 연합뉴스

또한 전반 35분 수비수 홍성욱(부경고)이 부상으로 더는 경기를 할 수가 없어 방우진(오산고)과 조기교체하는 불운까지 떠안았다.

한국은 결국 후반 32분 결승골을 내주면서 무너졌다. 후반에 교체 투입된 알리 아빌라의가 헤딩으로 한국의 골망을 흔들었다.

일격을 당한 한국은 후반 40분 정상민(매단고)의 결정적인 헤딩슛이 골키퍼 선방에 막혔다.

한국은 후반 추가시간 마지막 공격에서 골키퍼 신승훈(금호고)까지 공격에 나섰지만 끝내 동점골을 넣는 데 실패하면서 탈락의 아픔을 맛 봐야 했다.

### 벤투호, 아부다비 입성 2차 예선 레바논전 준비

레바논, 브라질과의 중동 원정 2연전에 나서는 한국 축구 대표팀이 베이 스킵캡팀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 입성했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태극전사들은 11일 이른 새벽 인천국제공항을 떠나 10시간이 넘는 장거리 비행을 한 뒤 현지시간으로 오전 6시 쯤 아부다비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벤투 감독은 "아부다비에서 곧바로 레바논에 대해 세밀하게 분석한 뒤 3일간 승리를 위한 준비를 차곡차곡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은 2차 예선 H조에서 2승 1무로 5개 팀 중 1위(승점 7·골득실 +10)를 달고 있다. 하지만 2위 북한(승점 7·골 득실 +3)과 승점이 같고 골 득실에서 앞서 있어 아직 안심할 수 없다. 이번 레바논전에서 반드시 승리해 북한과 격차를 벌려야 내년 6월 월드컵 2차 예선의 후반 4경기를 한결 편하게 준비할 수 있다.

벤투호는 레바논전 전날인 13일 결전지인 베이루트로 향한다. 이후 아부다비로 돌아와 19일 열릴 브라질과의 평가전을 준비한다.

연합뉴스

## 멕시코, 4연승 질주... 김경문호 '경계'해야

### 프리미어12 대만전 2-0 승리 한국과 15일 슈퍼라운드 대결

야구 국가대항전인 프리미어12 슈퍼라운드 첫 경기에서 멕시코가 대만을 꺾었다.

멕시코는 11일 일본 지바 조조 마린스타디움에서 열린 2019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 프리미어12 슈퍼라운드 첫 경기에서 대만을 2-0으로 꺾었다.

2020 도쿄올림픽의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야구 출전권을 두고 한국과 경쟁하는 대만이 패한 것은 호재다.

그러나 김경문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도 멕시코에 발목을 잡힐 수 있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멕시코는 대만을 이기면서 대회 4연승을 달렸다. 앞선 예선 라운드에서 미국, 네덜란드, 도미니카공화국을 차례로 꺾고 3연승으로 슈퍼라운

### 드에 진출했다.

WBSC 세계랭킹 6위인 멕시코가 세계랭킹 2위 미국과 4위 대만을 제압하며 승승장구하고 있다.

스콧 브로셔 미국 야구 대표팀 감독은 멕시코의 경기력이 절대 만만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후안 카스트로 멕시코 감독은 "멕시코를 대표해서 모든 선수가 하나가 돼 여기까지 왔다는 데 자부심을 느낀다"며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우승하고 돌아가고 싶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국은 12일 대만과 경기하고 15일 멕시코와 맞붙는다. 16일에는 일본과 경기가 예정돼 있다.

카스트로 감독은 기자회견에서 "일본에는 처음 왔다. 부인과 같이 왔는데 초보가 굉장히 부담있었다. 만족스럽다"며 여유를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4연승을 달리며 기세를 끌어 올린 멕시코를 우리 대표팀은 절대로 압박서는 안 된다.

연합뉴스

KBS1	KBS2	MBC	JIBS/SBS	EBS1
6:00 KBS 뉴스광장 7:35 KBS 뉴스광장 제주 7:50 인강극장 8:25 아침야당 9:30 KBS 뉴스 10:00 무얼이든 물어보세요 11:00 한국인의 밥상(재) 11:50 생활의 발견 스페셜	6:00 걸어서 세계속으로 6:50 생방송 아침이 좋다 8:00 KBS 아침 뉴스타임 9:00 꽃길만 걸어요(재) 9:40 무한리플 샐러드 10:40 지구촌 뉴스 11:00 조선로코·녹두전(재)	6:00 MBC 뉴스투데이 1부 6:25 MBC 뉴스투데이 2부 7:20 MBC 뉴스투데이 제주 7:50 모두 다 콩짜리(재) 8:30 TV매거진 해피플러스 9:30 930 MBC 뉴스 9:45 기분 좋은 날 10:45 UHD 특선 드라마 W(재)	6:00 모닝와이드 1부 6:20 모닝와이드 2부 7:20 JIBS 아침 뉴스 7:35 모닝와이드 3부 8:35 맛 좀 보실래요 9:10 좋은아침 10:10 SBS 뉴스 10:30 살맛 나는 오늘 11:00 우리끼리 탐구생활 11: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7:30 뽀롱뽀롱 뽀로로 8:00 땀방울 유치원 9:30 원더볼즈 10:00 자식의 기쁨 12:00 EBS 정오뉴스 14:55 꼬마버스 타요 15:10 로보카 폴리 15:55 출동! 슈퍼윙스 16:10 최고다! 호기심 딱지 4 16:40 땀방울 친구들 17:30 페퍼 피크 19:00 스페이더맨 20:00 매달도사
12:00 KBS 뉴스12 13:00 KBS 네트워크 특선 거북이 뇌우스 13:50 KBS 재난방송센터 14:00 KBS 뉴스 14:10 TV는 사랑을 싣고(재) 15:00 가요무대 16:00 시사간담 17:00 KBS 뉴스5 17:30 동물의 왕국	12:10 생생정보 스페셜 12:45 살릴하는 남자들(재) 13:50 무얼이든 물어보세요(재) 15:00 KBS 뉴스타임 15:10 자동차부채상 위키2 15:30 TV 유치원 16:00 무한리플 샐러드(재) 17:00 다큐 공감(재)	12:00 12 MBC 뉴스 12:20 2019 지구촌 어린이들이 희망더하기 13:30 웰로즈 동물교실 2 13:50 2시 뉴스 외전 15:20 뽀롱뽀롱 모두 다 놀자 16:20 모두 다 콩짜리(재) 17:00 5 MBC 뉴스 17:25 휴먼 다큐 사람이 좋다 스페셜	12:00 SBS 12뉴스 12:50 민방 네트워크 뉴스 12:50 뉴스브리핑 12:50 불타는 청춘(재) 14:00 뉴스브리핑 16:00 집시 무비월드(재) 17:00 SBS 오뉴뉴스 17:35 JIBS 뉴스 17:50 영재발굴단(재)	제주 CBS FM 93.3MHz 90.9MHz 7:00 김태희의 아침뉴스 7:30 김태희의 뉴스쇼 9:05 김태희가게 이만월입니다 12:00 CBS나눔합뉴스 12:05 창원이 있는 숲길 13:30 생명의 생 15:00 CBS 뉴스 17:05 시사매거진 제주 18:00 CBS 저녁종합뉴스 18:20 시사저널 정판용입니다 21:35 라디오강연 22:05 백현경의 가스펠 아워
18:00 6시 내고향 19:00 7 오늘 제주 19:40 보물섬 20:30 꽃길만 걸어요 21:00 KBS 뉴스 9 22:00 역사저널 그날 22:55 더 라이브 23:35 허룻밤 여행 소리 23:40 특선다큐멘터리 스티븐 스필버그의 질문 우리는 왜 중요하는가	18:00 KBS 경제타임 18:30 2TV 생생정보 19:50 유아한 모녀 20:30 글로벌24 20:55 거리의 만찬(재) 22:00 조선로코·녹두전 22:35 조선로코·녹두전 23:10 고평낙원	18:20 지역MBC 공동기획 농담이 미래다 19:30 MBC 뉴스데스크 20:55 웃음주식회사 속암수다 21:50 판매중계 1부 22:30 판매중계 2부 23:10 PD수첩	18:50 2019 WBSC 프리미어 12 슈퍼라운드 22:30 SBS 8 뉴스 22:50 JIBS 8 뉴스 23:10 불타는 청춘 1부 23:50 불타는 청춘 2부	7:00 KCTV 뉴스 8:00 방송콘텐츠 경연대회 '꿈을 그리다' 8:30 문화카페 9:00 KCTV 뉴스 9:30 중국어퀴즈대회 13:00 KCTV 13시 뉴스 14:00 문화카페 16:10 UHD 특선 17:40 KCTV 시청자세상 19:00 KCTV 뉴스7 21:00 KCTV 종합뉴스

#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TBN 제주교통방송 제주시 FM 105.5MHz 서귀포시 FM 105.9MHz

**오늘의 운세 12월**

김종상 지단(현) 작명역학 원장  
경기대 평교원 교수(010-5233-6136)

**36년** 휴식과 안정 속에 내일을 준비하는 것이 현명. 48년 투기나 도박에서 불리하니 안정이 보장되는 은행의 적금이나 투자가 적절. 60년 혼자 있는 시간 속에 외로움이 몰려온다. 여행도 조심. 72년 현화나 동호회 등 모임이 있다. 안전사고 조심. 84년 주관이 뚜렷치 않을 때 선배의 충고나 내게는 보약이 된다.

**42년** 부부간 갈등이 있거나 가정사로 고민이 생긴다. 이해와 배려가 묘약. 54년 실속이 적으니 신중하게 처리하거나 자중해야 한다. 66년 변화를 필요로 하는 날이다. 중요한 계약은 내일로 미루라. 78년 재테크 분야에 김하다. 주변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라. 90년 존경하는 마음을 가진 자가 존경을 받는다.

**37년** 운전유이나 사우나에서 안정을 취해도 좋음. 49년 도움을 줄 일이 생긴다. 내 도움이 미약하지만 상대에게는 크다. 61년 활동이 왕성해도 내맘대로 할 수가 없다. 73년 남의 말에 너무 맹신하지 말라. 도움이 없으니. 충동구매 주의. 85년 이성교제 또는 만남이 생기니 귀가는 늦지 않도록 할 것.

**43년** 내 노력을 인정받고 관청의 인허가 서류에 이익이 있다. 55년 문제가 있다면 친구나 이웃에 요청하면 좋다. 67년 가정에서는 사소한 문제로 불화하나 바깥에서는 활동영역이 넓다. 79년 전문직은 이익이 많고 직장이나 취업문제로 인한 걱정이 심한 사람이나 오해로 인한 인장은 심신을 상하게 한다.

**38년** 상가 또는 식당에 갈 일이 생기니 음식은 주의해야. 50년 문서운 이동수는 길하나 입시생이 있으면 부모는 정보분석 등 전문가와 상담. 62년 작은 일로 마음에 상처가 되니 관한 마음을 가지고 일상적 일을 하라. 74년 시집 작자와 관련된 시험은 컨디션이 좋다. 86년 재능을 인정받고 주위 협조가 있다.

**44년** 분별력이 필요하니 생각을 신중하게. 경기방은 비웃음에 대상이 된다. 56년 문상 또는 모임에 간다. 음식이 주의할 것. 금전상 이익이 있는 날. 68년 일한 만큼의 이익 생기고 창업이나 개업은 신중하게 판단. 80년 직장이나 취업문제로 인한 소식을 접한다. 92년 변동하는 것은 불리하니 신중을 기해야.

**39년** 자녀로 인한 기쁨이 오거나 소식을 접한다. 모임 조대가 온다. 51년 친구를 만나 외출을 하거나 회식자리가 생긴다. 63년 의욕은 넘치나 막상 해야할 일의 중요성과 가치때문에 고민한다. 75년 변동. 변화가 필요. 부족을 채우려고 고민하니 상의할 사람도 필요. 87년 늦게 약속이 생기면 취소하는 게 좋다.

**45년** 회망을 갖고 노력하면 일의 성과가 있다. 57년 상태를 감싸 안아 주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하니 이해를 많이 해줄 것. 69년 수입이 있어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다. 주변과 공유하라. 81년 부동산이나 세일즈분야에서는 인정을 받는다. 93년 나의 체력이 왕성해도 능력을 인정받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40년** 과거를 후회하기 보다는 교훈으로 삼아 내일을 준비. 52년 소망할 일이 생긴다. 필요한 것만 구입하라. 64년 원칙과 품행보다 때로는 융통성이 필요. 순발력과 유연성으로 대처하라. 76년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이 필요하니 하나씩 차근차근 준비하라. 88년 구설수가 있으니 이성간 또는 옛사람과 조심.

**46년** 자녀나 수하인의 자문이나 상담이 생긴다. 58년 이익을 먼저 논하지 말고 대의에 동참하는 게 좋다. 70년 새로운 발상 또는 손재주로 인한 사업은 진전이 있고 창업을 준비하기도 한다. 82년 미용분야-의류업-약세사리업은 기쁨이 많다. 94년 소망하던 일이 풀리고 마음이 즐거운 하다. 문서운이 있다.

**41년** 일이 막혔다고 포기하지 말고 어려운 점을 검토하고 제거방법을 찾아라. 53년 매대나 임대에서 이익이 있으나 슬은 자제. 65년 자녀로 인한 고민 같게 오니 주변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봐도 좋다. 77년 모임, 약속이 생기기도 하니 슬은 다소 자제. 89년 언쟁이 있고 신경이 날카로워진다. 조기 귀가.

**47년** 경쟁이 진행되고 질투나 배신 등이 오니 신중하고 친목에 어울려야 좋다. 59년 형제중에서 애-경사가 생겨 축하해 줄 일이 생긴다. 71년 창업, 매매, 전문업은 활동이 분주하고 이익 증가. 83년 허세를 부리던 구설수에 오으니 필요한 말만 하고 행동조심. 95년 무리한 투기보다는 안전에 치중 필요.